

ICMENS 2018 참관기

김 지 한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jihankim@kaist.ac.kr

필자는 2018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의 The Jockey Club Innovative Tower에서 개최된 ICME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erials Engineering and Nano Sciences) 2018 국제 학회에 참석했었다. 2017년 싱가포르의 진행에 이어 올해 두번째 개최된 학회는 다양한 나노 소재 물질 연구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목적으로 성립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회는 주제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Session 1: Carbon Materials and Functional Materials,
Session 2: Material Phys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Session 3: Nanomaterials and Biomedical Materials,
Session 4: Energy and Chemical Engineering,
Session 5: Material Mechanics and Material Characterization.

필자는 이 중에서 Session 1의 “Thousands and Thousands of Metal-Organic Frameworks: Too Many or Not Enough”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다. 그리고 필자는 이 세션의 좌장 역할을 맡아서 더욱 더 모든 발표를 집중적으로 듣고, 토론을 유도해 관심이 한층 더해졌었다. 이 세션에 나노 소재를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려는 실험 연구자들이 분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소재 모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그룹의 연구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서, 후



식 시간에는 서로간의 연락처들을 주고 받고 미래의 공동 연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다. 시뮬레이션 연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collaboration이 가능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또한, 다른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과는 서로가 사용하는 방법론/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들을 교환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학회가 개최된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는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했었는데, 고층 빌딩들로 구성된 캠퍼스는 홍콩을 상징하는 도시의 웅장함을 잘 나타낸 것 같았다. 특히 캠퍼스 인도가 지하/지상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불행히도 학회가 개최된 Jockey Club Innovative

Tower의 입구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Jockey Club Innovative Tower는 2013년에 완성된 건축물로 “collateral flexibility”를 건축의 테마로 결정한 만큼 곡선으로 둘러싼 외부 디자인이 인상 깊었다.

학회 이후,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캠퍼스 주변을 혼자 정처 없이 걸으면서 필자의 대학 시절이 저절로 생각이 났다. 필자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이민간 후 UC Berkeley에 처음 입학했을 때 캠퍼스/그리고 도시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Polytechnic University도 유사한 분위기로 인해 자극을 주었다.